

## 소감문

교과목명	스타트업초청강연	담당교수명	박종용	강연일자	2021. 03. 22.
강연제목	성공 스타트를 위한 3가지 핵심 키워드			강연자	김재호
학과 및 학년	국방정보공학과 2학년	학번	2020032306	성명	송민경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이 갖는 의미가 전체 일의 5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작의 중요성은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한 예로 달리기에서의 잘된 출발과 잘못된 출발을 보여주셔서 더욱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사업에 대한 What, How, Why를 찾는 것이다. ‘Golden circle’은 이러한 세 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어떻게’ 차별화된, 독특한 가치를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고민하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What에만 초점을 맞추고, Why 즉, 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Why->How->What 순으로 일명 ‘Golden circle’을 따른다면 더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NCEPT’는 여럿을 하나로(모두)라는 뜻의 ‘CON’과 잡다, 붙잡다를 뜻하는 ‘CEPT’가 합쳐진 말로, 여럿을 붙잡아 하나로 묶은 것을 뜻한다. 즉, 사업에 있어 CONCEPT는 모두를 끌어당길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영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CONCEPT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있어, ‘High-concept’라는 것을 적는데, “한 줄로 표현할 수 없는 영화는 히트할 수 없다.”는 말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다.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에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 중 핵심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CONCEPT이다. 즉 아무리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나의 제대로 된 CONCEPT가 없다면 좋은 시너지를 내기 힘들다. 이렇듯, 제대로 된 CONCEPT를 기준으로 낯설고 익숙함이 공존된 아이디어들과 함께 숨어있는 STORY를 찾아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